



ADMA

on line

2024년 11월



토리노 발도코 월간 메시지

요약

사설

- 3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양성 여정

- 4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 3. “내 말을 듣는 이는 누구나”.

친숙한 문자

- 6

B 입맞춤처럼.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7

복녀 막달레나 모라노,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살레시오 수녀).

도움이신 마리아회 지침

- 8

3. 가족정신.

가족연대기

- 9

- 남 아프리카 - 남 아프리카 살레시오 준관구의 청년 시노드에 아드마 입회지원자 참석.
 - 발도코 마리아의 날.
 - 브라질 성 바오로 관구의 아드마 친교의 날.
-

월간 기도지향

- 10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donbosco.org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축일

매년 11월 1일에 거행되는 모든 성인 대축일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의 높은 성덕에 도달하여, 이제 하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축일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인품에 올린 이들뿐 아니라, 비록 익명이지만 신앙과 자선, 성덕의 길을 걸어온 모든 성인들을 기억합니다. 이 축제의 중심에는, 거룩함과 탁월한 중개자의 완벽한 모델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빛나고 있으며, 성모님은 모든 성인들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인들과의 통교’, 즉 이미 하느님의 현존을 누리고 있는 믿는 이들과, 아직 이 땅에서 순례중인 모든 믿는 이들의 영적 일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친교는 지상의 교회를 넘어 천상의 교회를 기억시켜 줍니다. 모든 성인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이들을 중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유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영원한 삶을 향해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가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날은 또한 ‘성화의 보편성’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거나 시성되어 성인품에 오른 분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복음에 따라 살았으며, 성덕에 도달한 모든 이들을 기념합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거룩함은 선택된 소수의 특권이 아니며,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임을 강조합니다. 이 축일은 우리 각자에게 거룩함에 대한 소명이 새겨져 있으며, 일상생활 안에서도 사랑과 헌신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모 마리아는, 가장 우위에 계십니다. 성모님은 성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모든 성인들의 여왕’이시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뛰어난 모범이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아무 조건없이 ‘예’라고 응답한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겸손한 순명, 관대한 사랑의 삶으로 성덕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분의 관상적 삶과 하느님의 뜻을 충만하게 살아온 삶은, 우리가 관상하며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 땅의 모든 자녀를 돌보며 기도하는 하늘의 모성적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성덕의 길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신자들은 성모님에게서 영감을 주는 모범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주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동반자요

보호자로서,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또한 이 축일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인류에게 결정적인 약속의 날을 관상하도록 초대해줍니다. 마리아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 모든 신자들의 영원인, 하느님 현존 안에서의 영원한 삶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예와인 마리아는, 인류의 결정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희망의 표징이 됩니다. 성모님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삶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인 대축일은 이미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신 분들을 경축하는 것뿐 아니라,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희망하는 모든 이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인들은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분과의 영원한 친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인들의 삶에서 일하셨던 같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도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압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는, 성인들과의 친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계신 성모님은, 우리의 필요에 더 영향을 미치는 중재자이십니다. 이 축일에 성모님의 현존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있음을 기억시켜 줍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거룩함으로 불리운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깊은 친교의 행사입니다. 그 안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가장 거룩하며 모든 성인들의 여왕으로, 완전함의 모델이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영원한 삶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대하게 응답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축일은, 성덕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마리아께서 가장 고귀한 첫 증인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영광 안에 그분과 이를 친교를 우리가 깨닫도록 해줍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조 신부,
SDB 발도코 아드마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아드마 회장.**



양성 여성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3. “내 말을 듣는 이는 누구나”

기도와 삶

성경은 하느님께서 구체적인 분이시며, 우리도 구체적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시라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방법(길)이나 지식(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천(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바리사이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을 실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성 바오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로마 3,28)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갈라 5,6). 마지막으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7)라는 성 야고보의 명쾌한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야고 1,25).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비유는,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반석 위의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며, 사랑의 신비이신 하느님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대상이나 주체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이며 마음이고 완성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에서 하느님을 알 수 없으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안에서의 삶, 육체와 영의 싸움, 성령의 열매의 성숙으로 제시합니다. 이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풍요롭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알고,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자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노선을 따른 성령의 일입니다.

2.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면, 영은 자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의 논리와 영의 논리,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의 논리가 상충되며, 육체의 두 가지 울무는 서로 반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쾌락의 논리나 의무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 육적인 것에 종속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첫 번째 울무는 자유라는 구실로 영의 -이끌림에 따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며, 영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정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 고전적인 가르침이지만, ‘자유로운 사랑’의 시대에 이를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유라는 말 뒤에 나쁜 성향과 큰 종속됨이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 바오로는 우리가 두 가지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기도와 인내와 희망의 중요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은 또 다른 열정으로, 일탈된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부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자유라는 명목 아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무질서의 형태를 취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엄격한 도덕적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은총의 체계가 법의 체계로 대체되어 육을 따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며, 선한 것을 규정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실천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게 됨으로써,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아닌, 인간이 행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논리는, 교만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 빛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경직된 실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진 모든 빛을 다 갚으셨으므로, 우리는 빛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의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과 감사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하느님께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고, 자신의 성장을 측정하며, 하느님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보상해 주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업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계산함에서 거저받음으로 건너가는 통로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다면 사랑을 배우는다는 의미는, 거저 주는 법을 배우고 거저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이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 너무 복잡해져서 지독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받은 것만큼 주는 것에 강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선물은 항상 만족함의 기대에 따라 적거나 많은 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받는 것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나 만족을 요구하는 구실이 될 때마다 우리는 매번 관대함이 부족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더 미묘하게는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실패로, 사랑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마치 사랑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나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거룩한 계시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무상성의 논리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화의 발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과 울음을 통해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 방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좁은 문'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는 우주는 찬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의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피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정체성에 대한 욕구는 종종 물질적인 재화를 소유하고 특정 생활 방식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나의 부, 외모, 물건들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존재와 소유 사이의 혼동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서도, 되고자 하는 욕구, 어떤 재능(스포츠, 예술, 지적)을 성취하고 발휘하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앞의 것보다는 좀 나은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도 존재와 행위를 혼동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수준인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영적 프로파일은 소유와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덕과 영적인 자질로 자신을 성취하려고 하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선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악이나 선을 우리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말씀과 성령이 영적 정화라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은, 우리의 인격에서 인위적인 것을 해체하여 우리의 진정한 존재, 즉 하느님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적인 밤은 때때로 잔인한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신자 자신, 인간적 또는 영적 은사, 재능, 능력, 심지어 덕에 근거한 모든 가능성마저 신자로부터 휩쓸어 가져가 버립니다.



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 안에서 열정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끼는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그의 삶의 유일한 기초가 하느님의 자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적 혁명입니다. 나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이들의 영혼을 영적 미지근함의 시련에 빠지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가 삶의 고통을 통해, 더 올바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실패, 무력감, 모든 종류의 낙상, 질병, 우울증, 심리적, 정서적 연약함과 같은 삶의 고통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더 이상 앓을 것이 없을 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없음에서 왔고, 절대적인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며, '없음'이 된 사람, 그러나 그 없음의 밑바닥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약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늘 일치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기대하기에 그는 모든 실망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큰 내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사랑으로 사랑에 응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모든 것을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자유롭게 봉헌합니다.

로베르토 바렐리, SDB



친숙한 문자

B 입맞춤처럼

사랑의 몸짓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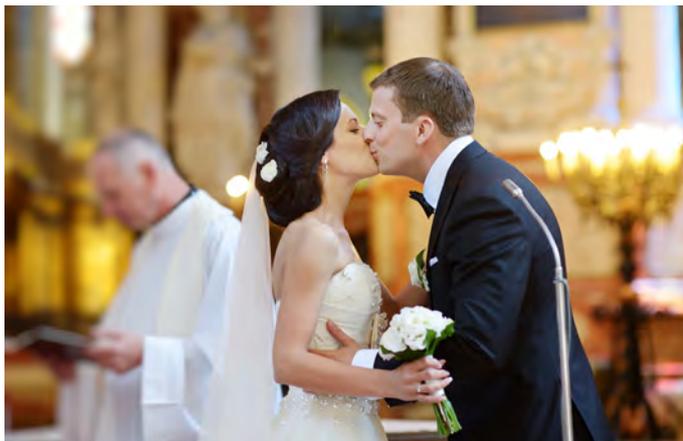
소년들은 첫 입맞춤을 꿈꾸고, 연인들은 열정적으로 입맞추며, 유명한 감성영화는 입맞춤 장면이 기억에 남고, 매춘부들은 고객에게 입맞추지 않으며, 성 베르나르도는 하느님과 사랑의 나눔을 성령의 입맞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맞춤은 우리의 최고 감각과 감정, 욕망과 유대를 응축하고 경축하며, 심지어 하느님의 마음을 암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제스처라는 표시입니다!

입맞춤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팔 수 없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에 지울 수 없이 새겨 주신 심오한 기본적인 진리 중의 하나입니다. 사랑의 몸짓은 감각의 낮 간지러움 이상이며, 입맞춤은 에로티시즘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의 입장입니다.

환상과 망상

물론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 가장 취약하며, 가장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 가장 위협받기도 합니다. 입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입맞춤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부가 입맞춤을 위해 1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입맞춤이 '유다의 입맞춤'으로 왜곡되거나 '페루지나의 입맞춤'으로 급속도로 부풀려져서, 배신의 타락이나 오락적 타락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친밀함의 제스처를 정말 그렇게 질투하는 걸까요? 참된 사랑의 이름으로 - 이것은 의식적이고 열정적인 성인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작업입니다 - 우리는 오늘날 입맞춤에 영향을 주는 감정의 축소와 에로틱한 평가절하로부터 입맞춤을 구제해야 합니다.

섬세한 학자들은 인간을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는 많은 세부사항, 즉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입맞춤을 통해 인간은 동물과 비슷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느님과 훨씬 더 닮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포유류 중에서도 독특한 인간의 직립 자세는, 인간의 손과 입은



건고 잡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얼굴과 생식기를 모두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먹기, 의사소통 하기, 생성하기라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없는 것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뛰어난 존엄성의 상징을, 인간의 입, 입술과 혀의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 유연성과 민감함, 우월한 활동을 위해 운명지어진 모든 기관이, 사랑의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입맞춤은 대화와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그 안에서 말은 몸짓이 되고 의사소통은 친교가 됩니다! 또한 입맞춤은 동일한 모방을 공유하는 성교의 서곡이 됩니다. 그 안에서 몸짓은 친밀감이 되고 친교는 생성을 낳습니다!

친밀감과 그 한계

그렇다면 우리의 소년 소녀들에게, 입맞춤은 단순한 탐구가 아닌 선언이며, 연애가 아닌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부드러우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청소년기의 문턱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사랑의 몸짓이 사랑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친밀감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밀감을 맛봄이, 인식하는 것과 자유보다 앞설 때, 즉각적인 입맞춤은 사랑의 중재라는 존엄성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큼니다.

더 위태로운 것은 사랑의 열정 그 자체입니다. 성직주의와 도덕주의에 대한 두 명의 순진한 증인을 인용하여 프로이드는, 이미 '금기가 있는 곳에 욕망이 있다'고 말한 반면, 갈림베르티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즉각적인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진정한 열정을 알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섹스에 빠져서 몸에서 몸으로 열정이 공급되는 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살기가 쉽다!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오늘날, 문턱과 의식과 법을 없애버리는 문화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은 애정행각으로 사랑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베르토 카렐리 SDB

(출처: 로베르토 카렐리 - 가족 알파벳)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복녀 막달레나 모라노,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살레시오 수녀)

이 복녀의 삶은 30년씩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세상 안에서, 두 번째 시기는 수도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1847년 11월 15일 키에리(토리노)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복녀는, 부유했던 아버지가 키에리 출신의 평범한 주부 카테리나 판젤라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어,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태어날 여덟 명의 자녀 중 세 명의 자녀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막달레나는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1855년 그녀의 아버지는 군 생활의 어려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달에 말연니인 프란체스카가 죽었습니다. 1년 후에는 요셉이 죽어서, 3년 동안 세 개의 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고통과 극심한 가난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 옆에 작은 방직기를 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베 짜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막달레나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엄마의 외사촌인 프란체스코 판젤라 신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가족에게 약간의 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복된 선행이지요! 그녀에게 이것은 가장 적합한 길을 다시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열 다섯 살에 그녀는 이 꿈을 실현했습니다. 부틸리에라 본당 신부는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유능하고 똑똑한 이 십대 소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1864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바로 몬탈도 토리노의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전체로부터 본당사제나 시장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교육적 역량은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교육자로서, 규율이 지켜지면서도,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함께 관대하게 헌신할 줄 아는 교육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적 역량을 본당 교리교육에도 활용했습니다. 교리문답! 그것은 그녀가 죽기 며칠 전까지 그녀의 온 삶의 ‘열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이 에피소드는 몬탈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럽고 남루한 거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오두막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카타리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혐오와 악의적인 발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집에 가서 그를 돌보고 선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쳐 봉헌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월급으로 어머니를 위한 집과 작은 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성소에 대해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평온한 삶을 꿈꾸기 시작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당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나에게서 보좌신부를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본당과 마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인생의 전반기 30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미 그의 나이는 수녀회에 입회하는 데에도 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수녀회로 가야 할까? 봉쇄수녀회? 어느 날 그녀는 토리노를 지나면서 돈 보스코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칼리에로 신부가 그녀를 돈 보스코와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돈 보스코는 그녀에게 “봉쇄수녀회라고요? 아니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성무일도서도 떨어뜨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1878년 8월 모르네세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마자렐로 수녀가 그녀를 수녀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1880년 그녀는 종신서원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성덕에 도달할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총을 청했습니다. 성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가 선종하던 해(1881년)에 그녀는, 트레카스타니(카타니아)의 원장으로 첫 순명을 받았습니다. 피에몬테에서 시칠리아까지! 그녀는 원장, 양성장, 교리교사, 간호사, 요리사 등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가르치고, 땀 흘리고, 요리하고, 교리교사로 일했는데, 소녀들은 ‘우리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며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토리노에서 1년 동안 쉬면서, 발도코 수녀원을 관리하던 그녀는, 다시 시칠리아로 파견되어 방문평의원, 원장, 수련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섬 전체를 책임지는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때 주교들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집을 열어야 했으며 항상 관대하게 이에 응했습니다. 알리 마리아(메시나)에 있는 집의 시작은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녀는 새로 탄생한 관구 전체를 비추어주는 참된 등대와 같았습니다. 모라노 관구장수녀는 축복받은 추기경인 하느님의 종 과리노 추기경으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스멧과 그의 후임자인 프란치스카 나바 추기경은 카타니아 교구의 ‘교리에 관한 사목’ 전체를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성 요셉과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 새로운 분원창립을 도우며,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와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토착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는 행동하는 여성이자 통치자였으며, 모성애를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낼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주세페 모나테리 관구장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항상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많은 활동은 깊은 내적 삶에 의해 지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가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쯤 감옥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을 만큼 그녀는 겸손한 성녀였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일치를 통해 힘과 영향을 길어냈습니다. “한 번 땅을 바라보았다면 열 번은 하늘을 바라보자”. 그녀는 항상 십자가의 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개의 분원, 12개의 오라토리오, 6개의 학교, 5개의 유치원, 11개의 작업장, 4개의 기숙학교, 3개의 교리신학원을 설립했으며, 그녀의 카리스마로 지자체와 교회의 지도층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그녀는 위대하면서도 뛰어난 여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뛰어난 양성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관구에는, 142명의 수녀와 20명의 수련자, 9명의 청원자가 있었습니다. 모라노 수녀는 1908년 3월 26일 카타니아에서 암 투병 끝에 선종했습니다. 모라노 수녀가 선종하자, 총장 카테리나 다게로 수녀는, ‘모라노 수녀의 죽음으로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11월 5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라노 수녀가 선종한

바로 그 도시에서 그녀를 복녀로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알리테르메(메시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복녀 막달레나 모라노 수녀를 풍요롭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그녀에게 교육적 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나이다,
그녀의 전구로 청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도 기쁨과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과 삶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희망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형제자매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뢰받는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피에르루이지 카메로니, SDB

(출처: Pierluigi Cameroni - 하늘의 별처럼)

도우미신 마리아회 지침

3. 가족정신

살레시오 가족정신은 우리 존재 방식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두 기둥 -예수 성체와 도우미신 마리아- 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특히 예방교육 안에서 젊은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레시오 가족의 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문으로서 우리는, 물질적, 영적 가난을 바라보고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본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활성화를 찾으면서, 우리의 평신도 성소를 충만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교회 사명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공동책임은 돈 보스코를 따르고 교회 사명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 사이에서 상호보완성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다양한 성소 안에서 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일치와 상호 지원의 증거이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평신도를 성직화하거나 서로 다른 삶의 상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 다른 은사와 직무, 사목의 공존과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여기가 나의 집이요 여기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발도코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여정

아드마 프리마리아 평의회에서 시작된 식별은, 지회, 살레시오 수도회와 살레시오 가족, 전 세계의 지회들과의 보다 지속적이며 폭넓고 명백한 활성화와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한 더 많은 공유이다.

첫 번째 측면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ADMA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이 지역 안에서 지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범 사례와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지회의 경험이 계속되고 통합되며, 다양한 현실과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또한 세계 차원에서 본회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대표를 식별하는 방법도 마련한다.

아드마 프리마리아로서 우리는, 이곳 도우미신 마리아 대성당에서 본회의 모든 회원과 각 지회를 대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모든 ADMA에게 해당되는 대성당과의 유대는, 본회의 존재와 사명의 근본이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현존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대성당의 살아있는 돌이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통해 발도코의 ADMA프리마리아를 어떻게 심오한 방법으로 새롭게 해오셨는지 볼 수 있었다. 이는 몇 년 동안 몇 명의 살레시오회 사제들과 함께 돈 보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과 성체성사로 기도하며, 결혼과 자녀들의 교육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었던 젊은 가족들이 포함되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ADMA프리마리아의 제안은, 일상 안에서 그리고 가정 생활 안에서 예수님과 개인의 관계를 다시 중심에 두는 것이다. 본회 여정의 중심이자 빼놓을 수 없는 매월 24일의 기념과 함께 월 피정(한 달에 한 번 일요일, 현재는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두 날짜와 두 장소가 제안됨)과 연례피정(현재는 여름에 산과 발도코에서 4일간)이 도입되었다. 가족 수가 증가하고 있고, 부부의 삶과 자녀 교육에 대한 제안이 많아졌으며, 모든 연령대의 성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이 광범위해졌다.

이렇게 가족 단위의 참가자가 많은 가운데 아드마 프리마리아는, 청소년, 특히 참가 부부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관구 청소년사목부와 오라토리오와 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성인들과 같은 주제를 청소년들에게도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가족정신은 우리가 지역 현실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회원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여 ADMA를 지역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 살레시오 가족의 중요한 세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도움이신 마리아 교육사목공동체, 살레시오 가족 관구협의회와 살레시오 가족 세계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관구, 세계 차원의 살레시오 가족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연대기

남 아프리카 - 남 아프리카 살레시오 준관구의 청년 시노드에 아드마 입회지원자 참석

남 아프리카 공화국, 오하네스버그 -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에스와티니의 남부 아프리카 살레시오회(AFM)의 모든 살레시오회 소속 청년 300명과 살레시오회의 동반들 받고 있는 교육자들과 수도자들, 프로젝트 사무실 직원, 청소년사목위 직원들이 ‘우분투-청년 시노드’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 토리노-콜레 돈 보스코에서 전 세계 살레시오 참가자들이 모인(8월 11-16일) ‘청년 시노드’가 폐막한 지 불과 2주 후, 남아프리카의 살레시오 청년들도 자신들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찬미받으소서’ 운동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준관구의



3개 도시가 주최한 그룹 워크숍 ‘에코 우분투’ 프로젝트 (2023~2026년)에는 대학 강의와 함께 친환경 및 환경 기술에 대한 대화형 세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준관구의 모든 살레시오 가족(SDB, FMA, MSMHC, 살레시오 협력자, 돈보스코 동문회, ADMA 입회지원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원탁회의로서 살레시오 가족의 성소 이야기 나눔도 있었습니다. 2024 살레시오 선교의 날의 주제인 “대화의 건설자”는 우분투 청년 시노드에서, 남아프리카 준관구 사회커뮤니케이션 담당인 Clarence Watts와 그의 스태프들이 준비한 여러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발도코 마리아의 날

10월 13일, 발도코에서는 “희년을 향하여: 기도의 교향곡”이라는 주제로 제14회 마리아의 날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토리노 프리마리아와 롬바르디아, 시칠리아, 리구리아에서 온 많은 아드마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로베르토 카벨리 신부의 지도로 양성적 시간이 잘 준비되었으며, 희년을 준비하며 교황님이 주제로 시한 “나의 하느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대한 설명이 있었다. 매일 아침 하느님께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선하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도록 마음으로 구하며 봉헌하도록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발도코 마당에서 개인 성찰과 묵상,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파티마에서 열린 제9차 마리아 대회 주제인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리라’로 입회지원자들이 소개되고 체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날 미사는 ADMA 세계 영적지도자인 가브리엘 데 예수 크루즈 트레호 신부의 주례로, 도움이신 마리아 공동체 원장 마놀로 히메네스 신부와 로베르토 카벨리 신부, 조반니 프리게리오 신부가 공동집전했습니다. 미사중에 24명의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성 바오로 관구의 아드마 친교의 날

9월 21일 토요일, 살레시오 사회사업 “성 카를로스”에서 브라질-성 바오로(BSP) 살레시오 관구 산하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21개 ADMA 지회의 회원 250여 명과 입회지원자 30명이 참여했으며, 관구장 알렉산드레 루이스 데 올리베이라 신부, ADMA 관구담당 비니시우스 리카르도 데 파울라 신부, 살레시오 가족위원장 루이스 안토니오 아미란다 신부와 여러 살레시오 수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제9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포르투갈 파티마, 2024년 8월 29일~9월 1일)의 주제와 동인한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리라’였다. 회의는 돈 보스코의 9살 꿈을 회상하는 윌리엄 데 리마 신부의 개회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마르코 비아기 신부가 “성모 마리아의 학교에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비아기 신부는 “ADMA 회원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와 성체께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음”



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미사 끝에 알렉산드르 루이스 데 올리베이라 신부는 참석자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의 축복과 함께 성 바오로 관구에서 카리스마를 특별하게 살고 활동하는 아드마회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월간 기도지향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아들이나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고, 위로해주시는 성령께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